2년 만에 돌아온 배우 최수종…EBS ‘야생3’로 국토 종횡무진

36년차 왕배우, ‘야생’으로 뛰어들다

배우 최수종이 30일 열린 EBS 교양프로그램 ‘이것이 야생이다 3-3%의 세상’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야생동물을 연상하게 하는 코믹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EBS

절벽 오르고 보트 몰고 직접 열연
해기사·원동기·드론 자격증 큰 힘
꾀죄죄한 몰골보고 아내는 한숨만
“몸 고되지만 좋은 프로 출연 영광”

35년간 안방극장을 누벼온 배우 최수종(60)이 야생에서 새 무대를 찾았다. 6월 2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EBS 교양프로그램 ‘이것이 야생이다3-3%의 세상’(이것이 야생이다3)을 통해 “지구상 단 3%만 남은 야생동물”의 세계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서쪽 끝에 있는 인천 소청도부터 최남단 제주까지 한반도를 종횡무진 한다. 몸에 로프를 묶고 험한 절벽을 오르거나 직접 보트를 모는 등 “야생을 더 깊게 알기 위한 노력”은 “기본 중 기본”이다.

최수종은 30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분명 녹록치는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입가에는 함박웃음이 가득 걸렸다. “몸은 고되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 나야말로 영광”이라는 자부심이었다.

● “선한 영향력 펼치고 싶어”

방송 출연은 2020년 KBS 1TV 예능프로그램 ‘한국인의 노래’ 이후 2년만이다. “후대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꺼이 방송가로 돌아왔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한반도 야생의 사계절을 생생하게 전한 ‘이것이 야생이다’ 시리즈의 “팬”이기도 하다.

“원래 도전과 모험에 몸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최근 해외 스타들이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출연하며 대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죠.”

연출자 최평순 PD의 말대로 “야생동물과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전에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모습”도 선보인다. 데뷔 36년차에 맞는 ‘변신’인 셈이다.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하니 부담감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청자를 대신해서 자연에 직접 부딪치는 과정이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훨씬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봤어요. 그만큼 시청자들도 깊은 공감을 해주리라 믿고요.”

● “아내 하희라는 걱정에 한숨만”

최 PD에 따르면 “최수종과 야생동물, 날씨가 모두 맞아야” 촬영이 비로소 성사된다. 소청도에 발을 들이기까지는 무려 세 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위해 따놨던 해기사(선박 운항), 원동기 운전, 드론 등 각종 자격증”이 힘이 됐다.

“모두 대역이 아닌 내가 직접 장면들을 소화하고 싶어 취득했어요. 드론자격증은 아내 하희라(53) 씨를 위해서죠. 희라 씨가 연인의 ‘투샷’을 드론으로 멋들어지게 담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찍어요’라고 말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했죠. 직접 배운 것들을 써먹으니 잘 됐다 싶어요.”

최수종은 “희라 씨는 촬영 다녀온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푹 내쉰다”면서도 “메시지에 공감하기에 아내도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궁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46억 년이 된 지구의 나이를 46살로 치면 인간이 태어난 건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 인류가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어요.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3%만 있다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단 3%의 소금인 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전설의 록밴드 ‘송골매’ 40년 만에 뭉친다

올 추석연휴부터 전국·해외투어 공연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 히트곡 열창
배철수·구창모 “특별한 공연 만들 것”

히트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등으로 1980년대를 가요계를 이끈 록 밴드 송골매가 40년 만에 다시 뭉친다. 특히 밴드를 상징하는 배철수와 구창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7080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송골매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1·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열망’(熱望)의 막을 열어 팬들과 만난다. 배철수와 구창모는 30일 공연 주최사인 드림메이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긴 시간 송골매와 함께해준 팬들을 위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특별한 공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록 밴드 송골매의 멤버 구창모(왼쪽)와 배철수가 40년 만에 뭉쳐 콘서트를 연다. 사진은 두 사람이 2004년 KBS 1TV 특집프로그램 ‘추억의 빅 콘서트’에서 15년 만에 한 무대에 오른 모습. 사진제공 | KBS

드림메이커엔터테인먼트는 “1970~80년대 한국 록 음악을 이끈 송골매가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라면서 “전국 투어와 함께 해외 팬들도 만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밴드 송골매는 한국항공대 ‘스쿨 밴드’인 활주로 출신 배철수를 중심으로 1979년 결성됐다. 1982년 홍익대 출신 블랙테트라의 멤버인 구창모와 김정선(기타)을 영입해 활동하며 본격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배철수와 구창모가 투톱 체제로 팀을 이끌었다. 1982년 2집 타이틀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비롯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모두 다 사랑하리’ 등 히트곡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후 1984년 구창모가 탈퇴하면서 배철수를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했지만, 1990년 정규 9집을 끝으로 긴 휴식에 들어갔다. 배철수가 MBC FM ‘배철수의 음악캠프’ 진행에 집중하며 밴드 활동 공백이 이어졌다. 2010년 원년 멤버인 이봉환·김정선을 주축으로 밴드를 재결성해 ‘송골매 2010’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알렉사, ‘원더랜드’로 빌보드 라디오차트 진입

알렉사

가수 알렉사가 신곡 ‘원더랜드’(Wonderland)로 미국 빌보드 라디오 차트에 진입했다. 30일 소속사 지비레이블에 따르면 ‘원더랜드’는 28일 빌보드 팝 에어플레이 차트(Billboard`s Pop Airplay Chart)에서 38위로 이름을 올렸다. 알렉사는 미국 NBC 음악 경연프로그램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American Song Contest)에서 이 노래를 경연곡으로 불러 우승했다. 지비레이블은 “이 차트는 라디오 방송 횟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입성의 교두보”라며 “2개월 만의 차트 진입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800만 팔로워 ‘성범죄자’ 승리, 인스타서 퇴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32)가 SNS플랫폼 인스타그램에서 퇴출당했다. 30일 오후 현재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접속하면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나온다. 그는 약 814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의 계정도 비활성화 처리됐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 출소한다.

故 임준혁 미발표 싱글 ‘일방통행’ 6월1일 공개

임준혁

42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27일 세상을 떠난 개그맨 임준혁의 유작 음원이 나온다. 30일 음원 제작을 맡은 유레카 프로듀서에 따르면 임준혁이 생전 작업한 첫 디지털 싱글 ‘일방통행’이 6월 1일 오후 6시 다양한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오로지 직진하는 마음을 담은 댄스곡이다. 가수 혜진이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노래를 작사·작곡한 유레카 프로듀서는 “임준혁이 데뷔 20년 만에 솔로 가수 데뷔를 준비해왔다”면서 “유족과 상의한 후 지인들의 뜻을 모아 노래를 예정대로 발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 ‘웃찾사’ 등에서 활약했던 임준혁은 27일 밤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